

# 버스없는 곳 '500원 택시' 달린다

### 익산시, 교통 사각지대 주민불편 해소 올해 말까지 시범운영 후 문제점 보완

익산시가 교통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농촌마을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나서기로 했다. 취임 후 지속적으로 살기좋은 농촌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온 정시장은 이번에 교통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농촌마을 주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한 시책

으로 '500원 택시'를 도입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오는 9월부터 금마면에 소재한 8개 마을을 대상으로 500원 택시의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범운영기간은 12월까지이며, 이 기간 동안 제기되는 문제점들을 보완해 내년부터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시내버스 승강장의 거리가 500m이상 떨어진 마을이나 버스 노선이 운영중 임에도 불구하고 배차간격이 3시간 이상 등 교통여건이 취약한 마을의 주민들에게 택시를 활용해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제도를 통해 택시를 이용하는 주민은 탑승지에서 가까운 버스정류장 또는 해당마을 읍·면 소재지까지 이동한 후, 500원을 이용요금으로 지불하면 된다. 나머지 비용에 대해서는

운전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정현을 시장은 "그동안 교통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많은 불편을 겪은 시민들의 불편을 신속히 해결해 드리지 못해 아쉬움이 컸다."며 "이 제도가 우리시에 빠른시일내에 정착해 교통 편의를 제공받지 못하는 시민이 한 사람도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전했다. 이 제도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익산시 교통행정과(859-5156)으로 하면 된다.

/익산=장양원 기자

# 익산 미래농정 혁신과제 추진 순항

### 4개 분야 중간보고회 정현을 시장·직원들 지역 미래모습 공유

익산시가 미래농정국을 신실한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4개 분야 21개 혁신과제 추진상황을 중간 점검했다. 지난 31일 오후 북부청사에서는 정현을 익산시장과 미래농정국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혁신과제 중간보고회가 열렸다. 이번 중간보고회는 지난 2월과 4월의 발골 및 최종보고회에 거쳐 확정된 혁신과제를 정현을 익산시장이 직접 챙기고 미래농정국 직원들과 농업

을 통한 익산의 미래모습을 함께 공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21개의 혁신과제 중 희망농정위원회 및 명예농업시장 운영, 시비 직불금의 고정으로 변경 등은 추진완료되었으며, 농업회의소 설치 및 지역농협 상생협력단 운영, 로컬푸드 공공농장 조성 등은 정상궤도에 올라 추진 중에 있다. 또한 ICT융복합기술을 활용한 미래첨단농업 육성을 위해 간편형 및 신규농가 스마트팜 보급사업 등 5개 사업 143개소 118억7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시는 농식품부의 공모사업인 공공급마시설 및 승마길 조성사업을 통한 말 산업 육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전북도 삼락농정 시군특화사업에 선정되어 5억원의 사업비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해 중간지원조직인 농촌활력지원단을 구축했으며, 내달 9월에는 서동농촌테마공원에서 농촌과 도시민이 함께하는 사랑 나눔장터를 준비 중에 있다. 새 정부 농정방향에 맞게 쌀 생산 조정제 도입 준비와 쌀 소비 촉진을 위한 혁신과제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혁신과제 추진이 쉽지 않은데도 열심히 뛰고 있는 미래농정국 직원들에게 감사와 격려를 보낸다"며, "끊임없이 농업인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면서 농업을 통해 익산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 정현을 시장 일일 소통행정 현장서 주민 목소리 귀담아

정현을 익산시장(사진)은 '모든 문제의 해답은 현장에 있다'는 소신을 가지고 주민들의 삶의 현장에서 생생한 삶의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기 위해 일일 소통행정을 운영한다. 정현을 시장은 9월 4일부터 약 한 달간 관내 29개 읍면동 주민센터를 돌며 시민들의 소리를 듣고 소통과 신뢰의 현장행정을 펼친다. 이번 소통행정으로 지역 현장을 직접 방문하면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이고 이를 행정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각계각층 시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받아 바로 처리가 가능한 것은 신속하게 처리하고, 타 기관 협의 및 장기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조를 거쳐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가 도출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이날 "일일 소통행정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 시정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주민 소통으로 30만 익산시민의 꿈이 실현되는 살기 좋은 익산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 랜섬웨어 범죄 예방 만전 군산경찰서, 홍보활동 전개 피해 사례·대처요령 알려

군산경찰서가 최근 유행하는 '랜섬웨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군산시 관공지 일대에서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랜섬웨어(Ransomware)라는 용어는 몸값을 뜻하는 Ransom과 소프트웨어(Software)의 합성어로, "당신의 컴퓨터 속 정보를 가지고 있으니 돈을 준 비헤달라! 돈을 보내지 않으면 정보를 잃게 된다" 리식 식으로 금전을 요구, 편취하는 수법이다. 이 날 사이버팀을 철길마을 등 사람들이 많이 찾는 관공지 일대에서 최근 범죄피해 사례와 피해발생시 대처요령 등을 설명하고 홍보자료를 배부하였다.



군산경찰서 직원들이 최근 유행하는 '랜섬웨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군산 관공지 일대에서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최원석 서장은 "앞으로도 30만 군산 시민들이 랜섬웨어 등 사이버 범죄로부터의 피해를 막기 위해 범죄예방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군산=장현기 기자



원광대학교 의료봉사단이 평균 해발 1,350m인 네팔에서 봉사활동을 진행한 가운데 의료봉사단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원광대 의료봉사 세계로 '쭉쭉'

### 평균 해발 1,350m 네팔서 40여명 따뜻한 손길 건네

원광대학교(총장 김도중) 의료봉사단이 평균 해발 1,350m인 네팔에서 봉사활동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왔다. 최근 네팔 남부지역 톰비에서 진행된 이번 봉사활동은 원광대와 삼동인터네셔널이 주관하고 원광대학교병원, 익산마한로터리클럽, 원광대총동창회, 한방교수회 후원으로 이루어졌다. 봉사단은 최운정(의학과) 교수를 단장으로 한의과대학 및 치과대학 교수들을 비롯해 원광대학교병원 간호사와 직원, 마한로터리 회장단 및 임원, 삼동인터네셔널 이사장, 원불교 교무 등 40명으로 구성됐으며, 여러 후원 단체가 함께한 연합봉사활동으로서 의미를 더했다. 특히 톰비 로터리클럽인 '루반데히(Rupandehi)' 회원 20여 명이 통역자원봉사로 참여해 국제적으로

연대한 로터리클럽의 면모를 보이기도 했다. 삼동인터네셔널 이사장 정덕근 교무는 "2012년 설립된 톰비삼동스쿨이 지금은 톰비 지역에서 많이 알려짐에 따라 한국의 따뜻한 마음까지 전하는 의료 손길이 더욱 절실하다"고 전했다. 올해 의료봉사는 총 1,870명의 환자가 진료소를 찾은 가운데 농양배출술, 지방종절제술, 익산편절제술 등 71명의 환자가 수술을 받았으며, 위생과 의료 환경이 열악함에 따라 염증환자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봉사단은 복부, 유방, 갑상선 초음파와 세극등 검사, 돌보기안경 제공을 비롯해 치과 스케일링, 발치 65명, 구강농양배출술 3명 등 수준 높은 진료를 펼쳤으며, 한방치료도 침술을 기본으로 부항, 운동치료, 개인생활 습관교육 등이 이루어지고, 한약은 오직산, 천공광제환, 황련해독탕 등이 처방됐다.

/익산=장양원 기자

### 군산 경암·구암동 복지허브화 디딤돌

### 권역형 내부사례 회의 실시 상호협력체계 구축 팔 걷어

군산시 경암동과 구암동은 지난 31일 구암동 주민센터 2층 복지상담실에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을 위한 '권역형 내부사례회의'를 실시했다. 복지허브화를 위한 권역형 중심동인 경암동 주민센터 주관으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 경암동 맞춤형복지팀, 구암동 사회복지담당자, 통합사례관리사가 구암동을 통해 확인한 두가지 이상의 복합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는 47구를 사례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진행됐다. 또한 가구별 욕구에 맞게 공공복지 제도로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기초생계, 의료, 주거) 및 차상위계층 신청

과 민간복지자원을 연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의뢰, 노인돌봄서비스 제공, 밑반찬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김경란 경암동장은 "맞춤형복지팀 신설 이후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본격적으로 활동함에 따라 경암동-구암동 간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맞춤형복지 허브화를 적극 추진하여 모두가 살맛나는 지역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차정희 구암동장은 "앞으로 맞춤형복지의 취지에 맞춰 어려운 대상자들이 원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위기상황에 놓인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함께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군산=김광근 기자

## 고맙습니다! 적십자회비

# 나눔이 희망입니다.

여러분이 참여해 주신 적십자회비는  
경주지진, 태풍 차바, 화재 등 각종 재난을 당한  
이재민과 소외된 이웃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적십자회비로 희망을 전하세요.

금융기관  
 가상계좌  
 인터넷  
 전화  
 편의점  
 신용카드 포인트  
 QR코드

응급 구호품 세트

홈페이지 [www.redcross.or.kr](http://www.redcross.or.kr)  
정기후원·긴급지원 문의 1577-8179

홍보대사 안재욱